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 SN.UTH

## ISSUE PAPER

2020-2호

발행인 진미석 | 발행일 2020년 8월 5일

발행처 성남시청소년재단

###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정책 방향

##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 성남시 청-청(Youth) 성장모델 구축”

#### ▶ 「청년기본법」의 제정 : 청년층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의 시작

-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시작으로 청년정책이 시작되었으나, 고용약화,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 등 청년문제 확산에 따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
- 「청년기본법」(2020.2.4.제정)이 8월 5일 본격적 시행됨. 「청년기본법」은 이전까지는 규정되지 않았던 청년의 연령(만19~34세)을 정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청년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 ▶ 청소년-청년 정책의 연결고리 필요성

- 청년문제는 청소년기로부터 비롯되는 생애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정책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은 만13-18세에 국한되어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간과되고 있음.
-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만9~24세)과 청년(만19~34세)의 연령은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연령기반의 보편적 정책보다 생애적 관점에서 개인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층화·다양화된 정책 운영 필요함.
- 청년문제의 예방적·종합적 대책을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과의 연계와 정책 간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선제적 접근의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청년 성장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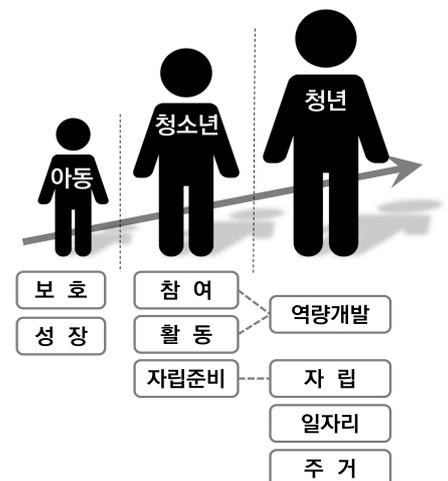
- 성남시 청년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남형 청년정책'이 요구됨.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분절된 청소년-청년 정책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성남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기 구축된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자 함.
- '청소년-청년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생애적 · 지역기반적 ·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시하고자 함.

### 같은 대상, 다른 정책 : 청소년-청년

- 청년정책 대상은 만15세~39세까지 각각의 법률,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아동-청소년-청년의 상태 이행에 따른 각각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연령보다 개인의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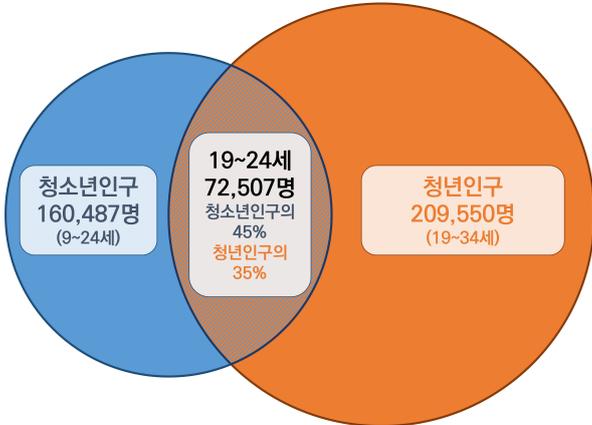
【법령 상 다양한 청년의 연령 규정】



【대상에 따른 주요정책 비교】

## 성남시 청년의 현황과 문제점

### ■ 청소년 인구 중 청년(만19세~24세)은 45%(72,507명)



【성남시 청소년·청년 인구현황(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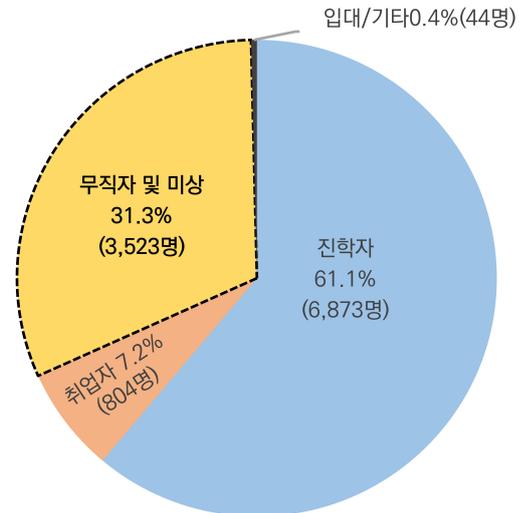
- 성남시 청소년(만9세~24세)과 청년(만19세~34세)의 인구는 370,037명으로 총 성남시 인구 960,342명의 38.5%에 달함.
- 청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만19세~24세)은 미성년에서 성인기로 전이가 이뤄지는 과도기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청년실업 및 고용에 초점화 되었으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도 후기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은 취업, 창업 등에 국한됨.

### ■ 성남 청년니트(NEET)비율 11.6%(27,292명) : 청년 초기개입의 필요성<sup>1)</sup>

-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성남 청년(만15세~34세) 니트 청년의 비율은 11.6%(27,292명)으로 전체 청년 10명 중 1명임.
- 일 경험이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은 28%(2,324명)였고, 최근 3년간 일 경험 없는 청년은 24.2%로 나타남. 또한 일 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도 상당 수가 비정규직 일 경험자 비율이 많음.
- 성남시 비규직 니트청년 중에서 경력직 비규직니트(21.9%)가 무경력직 비규직니트(8.5%)보다 높고,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이는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취업 실패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거나, 실업자가 실망 실업화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 고교나 대학 졸업 후 무직·미상자(입시 준비 등)의 이행경로가 여타 집단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성남시 고교 졸업생(2019년) 중 무직 및 미상자는 31.3%(3,523명)에 달함.
- 청년층 NEET문제의 예방을 위해 초기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사회로의 연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함.



【원자료 : 전국 및 성남시 청년니트 현황(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



【원자료 : 성남시 고교 졸업생 현황(경기도교육청, 2019)】

### ■ 성남시 청년 노동자의 높은 노동인권 피해 경험, 낮은 교육 경험율<sup>2)</sup>

- 성남시 청년 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50.2%이며, 비임금노동자는 1.9%, 실업자는 5.5%, 비경제활동인구는 42.4%로 나타남.
- 성남시 청년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1.1%)는 고용한 사업체로부터 침해를 입거나 인권침해, 차별과 같은 부당대우를 경험함.
- 피해자 중 84.7%가 부당대우 피해를 구제받거나 보상받지 않고 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공공기관이나 성남시 운영기관에 요청한다는 답변은 3.1%에 불과함.
- 청년 임금노동자 중에서 노동인권 및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17.5%에 불과함.

1), 2) 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 ■ 성남시 청년 일자리 : 일터와 거주지의 불일치,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sup>3)</sup>

- 성남시 거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57.6%)은 전국(52.5%)과 경기도(54.1%) 청년의 평균보다 높으며, 성남시 전체(52.1%)보다 높음.
- 성남시 청년의 실업률(9.6%) 역시 전국(8.0%)과 경기도(7.3%)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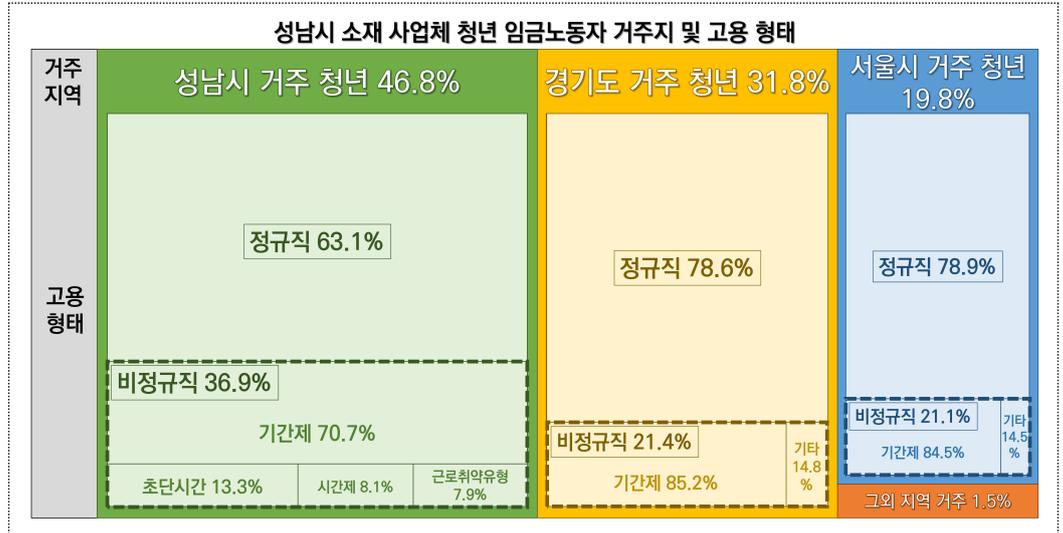
• 성남시 전체 일자리 중 성남 거주 청년의 비중은 절반 미만(46.8%)임.

- 성남시의 높은 거주비용이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성남시 청년 1인 가구 중 임대료 과부담자 비율 52%

• 성남시 거주 청년 임금노동자가 타 지역 거주 청년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36.7%)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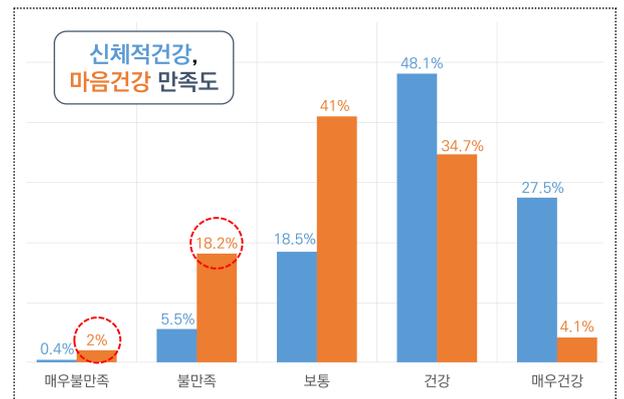
• 특히 비정규직 형태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한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원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

### ■ 낮아지는 마음 건강, 열악한 거주환경<sup>4)</sup>

- 성남시 청년들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족도에 비해 심리적 건강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20%가 넘는 청년들이 우울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비취업 청년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
- 성남 청년들의 문화활동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청년들의 문화 활동 중 30% 이상은 성남 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 청년 1인 가구(전체 가구의 8.9%)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5.2%)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임.



【성남시 건강 상태(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 2019)】

## 성남시의 청년 정책

- 성남시 민선7기 시정에서는 ‘아동과 청년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목표로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함.
- 2019년 청년정책 전담조직(행정조정기획실 청년정책과)과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정책 등을 시행 중임.
- 성남시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배당을 2016년 전국 최초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

청년참여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청년문화예술
청년지원센터 설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첫출발 책드림
청년아카데미 운영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예술창작소
청년정책 소통창구 운영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남 문화예술 활동지원
	청년 전공 살리기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드림 슈트		
	데이터, 시용합 인재양성과정		

【성남시 주요 청년정책 (성남시청 홈페이지, 경기청년포털)】

3), 4) 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청년정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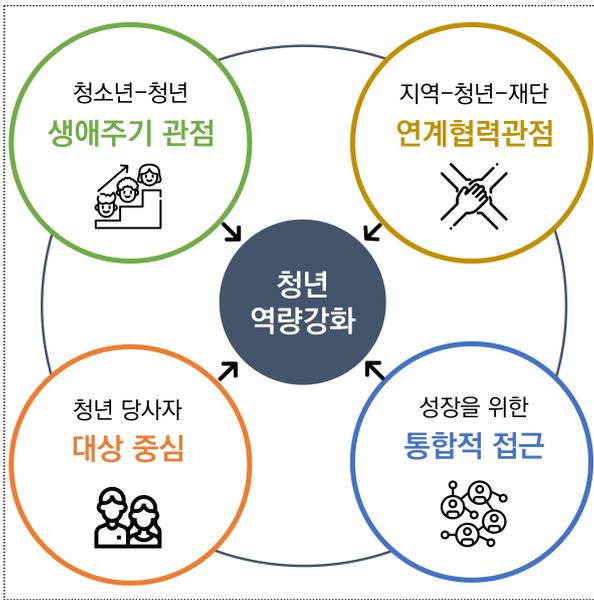
### ■ 청소년 거점의 청년정책 시행

- 청소년 기반의 청년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실 신설 및 청년사업의 본격적 시행
  - 청년정책실은 청년정책팀, 청년교류팀으로 구성됨.
  - 재단 내 시설은 창업, 미디어, 활동, 자립준비 등을 위한 「청년거점공간」 및 사업 운영
- 성남시 제1호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름’ 운영(2019.8.개소)
- 지역과 청년, 행정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재단의 역할 강화



【성남시청소년재단 조직도】

###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정책 추진방향



### ■ 2020년 주요 사업

- **청년참여단 · 성남청년정책지원네트워크**
  - 정책의 당사자성 강화를 위한 ‘청년참여단’ 구성
  - 청년 당사자, 지역, 기업CSR 관계자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 **성남 청-청(청소년-청년) 포럼**
  - 성남 지역 기반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을 토론과 공유의 장
- **성남형 청년 갭이어(Gap-Year) 프로젝트**
  - 학업이나 직장을 중단·병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설정하기 위한 사업(‘휴먼청년 프로젝트-한국청년재단 공모’)
- **청년 프리-인턴십(Pre-Internship)**
  - 청년의 취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인턴십 기회 확장을 도모하는 낮은 진입장벽의 하이브리드형 청년 인턴십 과정
- **청소년-청년 노동인권보호증진**
  -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총괄적인 운영과 2020년 노동인권 온라인박람회를 통한 청년 노동존중 발판 마련

###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정책의 향후 방안

#### ■ 성남 청년정책의 플랫폼 확대

재단 내 청년사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청년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및 이를 통한 정책 안정화 촉진

#### ■ 청년정책 전문가 양성 강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내 전문가 양성과 청년당사자의 정책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포럼 등 운영

#### ■ 데이터 구축을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 구현

청년당사자 소통과 새로운 정책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온라인패널 모집과 조사분석 등 증거기반의 청년정책 환류시스템 구현

#### ■ 청년 당사자성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지역 청년의 정책 수립 과정 등 참여 기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구축과 청년 민주시민성 확대의 장 마련 강화